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시리즈의 첫번째 화이트 와인’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샤르도네 라스 피에드라스

Trapiche Single Vineyard Chardonnay Las Piedras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6-8℃		
테이스팅 노트	잘 익은 핵과일 류의 아로마와 함께 시트러스와 오렌지 향이 피어나는 듯 하다. 스모키한 오크향과 더불어 크림미한 텍스처도 인상적이다. 생동감과 신선함이 동시에 엿보이는 피니쉬도 인상적인 화이트 와인이다.		
페어링 TIP	익힌 해산물, 흰 살 생선, 익힌 채소, 치즈,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트라피체와 협약을 맺고 있는 80여 개의 싱글 빈야드에서 특별히 3개의 빈야드만을 선택하여 만들어지는 트라피체 싱글 빈야드 샤르도네는 그 희소성과 뛰어난 퀄리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Wine for Smart Trendsetter”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샤르도네는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페루아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이는 화이트 와인으로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 졌다.

이미 핑카 라스 피에드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라스 피에드라스 빈야드에서 재배 되는 샤르도네로 만들어져 트라피체의 화이트 와인 포트폴리오에 한번 더 강한 힘을 싣고 있는 와인이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6점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5점
2021빈티지 94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톨랑과 합작으로 ‘이스카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